

# 創刊辭



協議會會長 朴吉眞

大學社會의 至大한 關心과 與望속에서 協議會가 發足한지 어언 9個月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政府當局의 配慮와 各大學의 協力, 그리고 草創期에 創設業務를 맡아 수고하신 여러 任·職員들의 努力으로 이제 그 運營基盤을 굳혀갈 수있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民主主義의 土着化와 教育革新을 志向하는 새 時代를 맞이하여, 大學의 自律性을 伸長시켜 教育의 民主化를 成就하려는 意志가 大學教育協議會 創設로 發現되었음을 勘案할 때, 우리는 이 制度를 보다 建設的인 方向으로 活用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自律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 또한 重要的 것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원래 自律이란 自律할수있는 者에게 주어지는 特權이며 그 自律이 混亂과 無秩序로 轉落된다면 필경 他律을 不可避하게 한다는것은 自명한 理致라고하겠읍니다.

앞으로 이 協議會가 大學人의 衆智를 모아 大學間의 共通關心事와 當面한 課題들을 相互協議하고 調整하며, 또 必要한 建議를 해서 解決해가는 生産的인 協議機關이 된다면 그 創設의 重要性을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後日 우리는 이 歷史的 轉機를 높이 評價할 날이 있을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餘年間에 刮目할 만한 國力の 伸長을 이룩하였읍니다. 이러한 成長과 發展이 바로 教育에 힘입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共認하고 있는 事實이며, 앞으로도 賦存資源이 貧弱한 우리 나라의 處地에서 닥아오는 高度産業社會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國際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優秀한 高級專門人力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아무도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大學들에게는 時急하고 當面한 課題들이 너무 많고 그 모든 課題들이 人的, 物的 資源의 不足과 缺乏에서 緣由되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劃期的인 教育投資를 主唱하는 한편으로, 干先 우리의 지혜를 모아 주어진 條件이나마 最大限으로 活用하는 相互協力이 절실히 要請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協議會 創設의 趣旨를 살리고 會員大學間의 協同과 相互發展을 促進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正確한 情報交換과 相互理解가 先行되는 것이기에 發足以後 아직 日淺하여 與件이 不備한 채로 協議會 會誌의 創刊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本誌는 大學教育의 理論과 實際에 관한 國內外大學의 좋은 資料와 優秀事例를 紹介하고 教育이나 學術에 관한 情報를 傳達하며 大學教育이 當面하고 있는 主要課題들을 特輯으로 엮어가면서 大學教育의 바람직한 方向을 摸索해가는 情報媒體로서의 機能을 遂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췌록 大學人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協調속에서 號數를 거듭할 수록 水準을 높여가면서 이 會誌가 大學社會의 거울이 되고 羅針盤이 되며 그內容들은 發展하는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里程碑로 記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本協議會의 創設과 發展을 위해 支援協調하여 주신 政府 및 關係機關의 여러분에게 이 紙面을 빌어 깊은 敬意와 感謝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倍前의 指導와 激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家庭에 보다 큰 幸運이 있기를 빕니다. \*